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외의 우발적 결합

박경숙* · 김영혜** · 김현숙***

이 연구는 왜 많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만혼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가,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기회가 큰가, 또한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들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의 형상이 상충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결혼에 기대하는 가치와 기회구조, 그것의 사회구조적 연관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그리고 경제위기의 복합적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남녀의 결혼의 가치와 기회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조사한 1998년에서 2002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다. 결혼력과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여 결혼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교육과 고용상의 지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1990년 이후 교육,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크게 계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시기는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고용상의 지위와 결혼시기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혼의 경향이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여성에서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보다는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 획득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는 대신 취업상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취업기회의 제약은 '우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동기를 크게 하였고,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대를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단어: 만혼화, 결혼의 기회구조, 결혼의 가치, 계층혼, 성역할규범, 경제조정

* 동아대 사회학과 조교수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신라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전임연구원

1. 문제제기

최근 TV 드라마에서는 싱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올드미스 다이어리,’ ‘섹스 앤 시티,’ ‘브리짓 존스의 일기,’ ‘내 이름은 김삼순’ 등 30대 싱글 들의 삶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 왔다. 이는 미혼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개인에게 무겁게 지워진 가족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다양한 결혼정보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남녀 수의 규모가 의미하듯이 이상향의 배우자를 찾으려는 기대와 노력은 결코 약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농촌이나 도심의 거리에서 국제 결혼 알선의 문구가 적혀있는 팜플렛이나 현수막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들과 속전속결로 결혼을 치루는 것도 현재의 결혼 문화가 되고 있다.

옛적부터 결혼은 개인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생애 전환점으로 인식되었다. 배우자를 만나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결혼적령기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혼과 가족생활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생활양식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매우 낮은 출산율도 바로 결혼시기 지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오랜 기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위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영화, TV, 신문 지상에서 구성된 이야기나 메시지의 단편적인 조합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왜 결혼시기가 지연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결혼시기의 지연 현상은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으로 부모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한 세대들인 현재의 청년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 훨씬 자기중심적인 가치지향을 선호할 수 있다. 그들은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결혼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이해와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면서 결혼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결혼시기의 지연은 이렇게 결혼이 규범에서 선택으로 인지되는 가치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계층 동질혼이 강화되고 있듯이, 자발적인 ‘선택’의 기준은 지위획득의 이해와 긴밀히 연계된다. 이와 함께 1990년 후반부터 두드러지는 현상은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위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미래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혼인을 지연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남성들은 결혼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남녀가 결혼을 결정하는 시기가 결혼 코호트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결혼의 경제, 문화적 조건이 크게 변하였다는 가정에서 결혼 코호트별로 교육, 취업상태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2. 결혼의 규범과 기회구조

2000년 <인구동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혼연령은 남성 30.03세, 여성 26.9세로 1970년에 비해 각각 2.9세, 3.64세 증가하였다. 초혼연령의 증가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교육기간의 연장이 초혼연령을 높인다고 보았다(한경혜, 1990; 이삼식, 1993; 은기수, 1995, 1999). 지난 몇 십년간 청년층의 교육수준이 급속히 개선된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라 초혼기간이 지연되었을 개연성은 높다. <표1>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39세 남녀의 교육수준은 매우 크게 향상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20-29세 남성의 20% 정도만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의 대학교 교육 취득율은 그보다 훨씬 적어 남성의 반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2000년에는 20-29세 남성의 61.3%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취득하고 있고, 여성도 과반수가 넘는 비율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결혼시기가 증가되었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변화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삼식(1993)은 1970년에서 1990년 기간의 <인구동태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결혼시기를 분석하였는데, 1970년 시점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이 되면 교육수준과 결혼시기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같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혼인율이 대학교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결혼시기의 집단별 차이를 좀더 명확히 관찰하기 위하여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교육수준별 초혼연령(SMAM)을 분석해 본 결과,

〈표 1〉 남녀 교육수준의 변화, 1980-2000

	연령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계	인구수
남							
1980년	20-29	17.58	23.67	38.77	19.99	100.00	3,608,694
	30-39	25.87	23.98	32.44	17.72	100.00	2,420,691
1990년	20-29	2.77	9.14	50.46	37.64	100.00	4,455,202
	30-39	8.96	18.16	46.11	26.77	100.00	3,791,030
2000년	20-29	0.52	2.17	35.99	61.32	100.00	4,085,527
	30-39	2.21	5.82	45.58	46.39	100.00	4,185,694
여							
1980년	20-29	27.91	30.21	32.57	9.03	100.00	3,537,116
	30-39	50.47	24.98	18.25	6.31	100.00	2,321,891
1990년	20-29	4.23	14.62	56.82	24.33	100.00	4,274,607
	30-39	17.53	29.78	41.07	11.61	100.00	3,617,894
2000년	20-29	0.49	1.74	43.96	53.82	100.00	3,859,637
	30-39	3.18	10.19	56.11	30.52	100.00	4,094,487

자료: 인구총조사

주: 해당 교육수준의 인구는 중퇴, 재학, 졸업, 수료 인구를 합한 수이다.

교육수준별 초혼연령의 차이가 남녀 별로 차이가 큰 것이 밝혀진다(<표 2>). 남성의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은 선형적인 관계로 요약하기 힘든 양상을 보인다. 초등학교 학력의 초혼연령이 1980년에 27.3세에서 2000년에는 33.1세로 20년 만에 5.8세 늦어졌다. 그리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남성의 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경향이 여러 시기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기간의 연장의 효과를 상쇄하는 교육의 효용가치가 결혼시장에 작용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교육수준별 임금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고학력의 미혼 남성은 결혼시장에서 생계부양이 있는 미래의 배우자로서 선호되며 그 만큼 배우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초혼연령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초혼연령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모든 교육수준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초혼연령이 증가되고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에서는 초혼연령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표 2> 교육정도별 성별 초혼연령(SMAM)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남성	1980	27.3	26.7	27.0	27.9
	1990	29.5	28.3	27.9	28.6
	1995	30.9	30.0	29.4	29.7
	2000	33.1	31.1	29.5	30.0
여성	1980	22.4	23.3	25.2	26.4
	1990	22.9	23.4	25.2	27.4
	1995	24.2	24.0	26.3	28.2
	2000	25.1	24.5	25.6	28.2

자료 : 인구총조사, 2% 표본

이러한 남녀 교육수준별 초혼연령의 차이는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남녀 별로 차이가 큼을 반영한다. 생애과정이 혼인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은기수 (1995, 1999)는 남성은 결혼을 결정하는데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반면, 여성은 결혼적령기 규범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성에게 취업이, 여성에게 결혼적령기 규범이 결혼시기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남녀 성역할분리규범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미래의 남편을 선택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생활능력이고, 바깥일보다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미래 아내의 역할이라는 가치의식에서 남녀 이상형의 배우자가 그려지는 것이다.

산업화 논의에 따르면, 사회가 발전하면 개인의 자율성도 증대되고 결혼시기도 지연된다고 말한다(Becker, 1981; Boudon, 1973; Grusky, 1983). 특히 사회 발전은 여성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장시켜줌으로써 여성을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산업화와 가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회변화가 주는 교훈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근대화론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사회참여의 기회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지 않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6년 24.2%(농업참여도는 제외한 수치인 것 같다)에서 2000년의 48.9%로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최근까지도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민경희, 2002).

배우자 선택유형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교육 동질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미해, 1990; 이환석, 1992; 박경숙, 1993; 이명진, 2002). 교육 동질혼의 증가는 부부관계가 보다 평등하게 변하는 정도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결혼이 계층화되는 경향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환석(1992)은 한국사회에서 교육동질혼의 변화추세는 각 교육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인구크기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동질혼이 강화되는 것은 남녀 교육수준의 차이가 완화되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통제된 상황에서 결혼의 계층화 정도가 심화된 두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상수(1999)의 연구에 의하면 동질혼의 경향은 학력수준에서 양 극단, 즉 대졸과 초졸 이하의 학력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각 학력별로 남편과 아내의 동질혼의 경향은 달랐는데, 남성은 초등학교 학력에서 동질혼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반면, 여성은 대졸 학력에서 동질혼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계층 동질혼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배우자의 학연을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을 극대화하는 행위 양식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최선훈, 2002).

계층혼이 심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 농촌이나 도시 하층 남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35,447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1.4%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1990년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8.2%로 여성의 3.2%에 비해 약 2.6배 정도 높다. 이러한 국제결혼쌍의 증가는 배우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결혼자본이 부족한 남성들의 선택이었고, 이 들 국제결혼 가정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이렇듯 배우자의 선택조건들이 성역할 분리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규정되고 계층 동질혼이 다른 선진사회와 비교해서도 매우 강하다는 것이 1990년대 전반까지 관찰할 수 있었던 결혼 풍속도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래 경제, 사회적 변화는 결혼의 가치와 물질적 조건을 크게 변화시켰을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보다 경제활동을 우선시 하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수준이 증가하고 고용구조도 불안하게 되면서 남성 혼자만의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부양이 어려워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이 평준화되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고학력 남성에게 주어졌던 교육에 따른 보상정도가 약화되었을 수 있다. 결국 경제 불안 상황에서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이 약화되면서 미혼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는 다시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들을 변화시켰을 수 있다.

특히 성역할 분리적 관계의 경제적 토대가 긴장하는 상황에서 결혼의 규범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계층은 가족 밖에서 지위획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문직 고학력 여성이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녀의 결혼자원과 결혼가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호관계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전후로 크게 변화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주요한 가설은 성역할 분리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남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능력에 따라 결혼시기가 결정되는 반면(가설1), 여성은 결혼이 보상하는 지위에 따라 결혼시기가 결정된다(가설2)고 가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시기가 빠르며, 사회적 자본이 큰 여성은 유능한 남성을 만남으로써 대리적으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 결혼시기가 빠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결혼자원의 제약은 남녀 모두의 결혼 기회를 크게 약화시켰다고 가정한다. 고학력 남성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저학력, 낮은 직종의 남성들의 결혼기회는 더욱 막혀버릴 수 있다. 또한 능력 있는 생계부양자를 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려는 태도가 발달하였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지향이 약화되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 전 최근 코호트에서 고학력 남성은 저학력 남성보다 결혼의 기회가 더 크며 그 결과 결혼시기가 더 빠를 것으로 가정한다(가설 1-1). 한편 경제위기의 충격은 취업기회를 위축시켰고 남성의 부양능력을 약화시켜 결혼시기를 늦추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경제위기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남성의 취업기회도 크게 제약되어 학력별 결혼 시기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가정한다(가설 1-2). 한편 교육정도와 독립적으로, 비취업 혹은 낮은 직업지위에 있는 남성의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가설 1-3).

여성의 경우는 경제위기 이전 코호트에서는 고학력일수록 결혼시기가 빠를 것으로 가정한다(가설 2-1). 이는 계층혼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능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함으로써 대리적 지위를 획득하는 행위방식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이 강한 상황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취업과 결혼시기의 관련성은 미미하다고 가정한다(가설 2-2). 한편 경제위기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여성도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결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는 약화되어 결혼시기가 지연되었을 것으로 가정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갖

춘 전문직, 고학력 여성에서 결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가 크게 약화되었을 것으로 가정한다(가설 2-3).

가설 1. 남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결혼자원에 따라 결혼시기가 결정된다

- 1-1) 경제위기 이전 결혼 코호트에서는 저학력 남성의 초혼연령이 고학력 남성에 비해 더 늦을 것이다.
- 1-2) 경제위기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 고학력 남성과 저학력 남성의 초혼연령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 1-3) 비취업과 낮은 직업지위의 남성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초혼연령이 늦어질 것이다.

가설 2 여성이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는 결혼이 보상하는 지위에 따라 크게 결정된다

- 2-1) 경제위기 이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초혼연령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더 빠를 것이다.
- 2-2) 경제위기 이전 결혼 코호트에서 취업과 초혼연령의 관계는 약할 것이다
- 2-3) 경제위기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취업/전문직종의 여성이 저학력/비취업/낮은지위의 직종의 여성에 비해 초혼연령이 유의하게 늦을 것이다.

3. 자료와 측정

1) 자료

초혼시기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5차년도와 5개년도 조사자료이다. 1998년부터 실시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경제활동과 혼인력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부

분은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 년도에 걸친 반복조사를 통해 포착한 혼인력과 취업력 부분이다.

분석대상은 1차년도 조사시점인 1998년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남녀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 사례수는 1998년 8,639명에서 출발하였으나, 중도에 패널의 탈락으로 인해 1999년 7,084명, 2000년 6,410명, 2001년 6,183명, 그리고 2002년 5,99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도중에 패널이 탈락되어 자료가 손실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찰종료직전까지의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서 결혼시기가 측정된 사례는 7,408건 이다.

2)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남성과 여성의 초혼시기이다. 본 연구에서 초혼시기는 사건(event)의 순간 재해율(hazard rate)로 나타나는데, 재해율이란 어느 시점까지 사건(event)을 겪지 않은 표본주기들(spells) 중에서 그 시점에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순간적인 확률(밀도)로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_{jk}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_{jk}(t, t + \Delta)}{\Delta t} \quad \text{<식 1>}$$

여기서 $P_{jk}(t, t+\Delta)$ 는 t 시점에서 j 상태에 있다가 t + Δ 시점에 k상태로 변화하게 될 확률이다.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이행 분석에서는 미혼상태에서 시작된 주기가 어떤 시점에서 기혼상태로 전환하게 될 확률을 가리킨다. 이것을 개인이 첫 결혼할 확률로 계산하였다. 기혼으로의 이행률 분석시 조사시점까지 기혼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은 우측 절단(right censored)된 경우로서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분석된다. 이렇게 조사시점까지 관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우측절단된 자료로서 분석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표본선택편의의 문제를 줄이고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의 장점 중 하나이다.

초혼시기는 <표 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1998년과 2002년의 조사시점 당시의 초혼상태를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사례1에서와 같이 1차년 조사당시인 1998년에 이미 초혼을 한 경우에는 초혼시기 관찰이 가능하였다. 사례2는 조사기간인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초혼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초혼시기 측정이 가

능했다. 그러나 사례3은 최종 조사시점인 2002년 현재 초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사건의 관찰이 중지된 경우이다.

미혼을 포함하여 초혼시기가 측정된 사례수는 7,408명이다. 전체사례수보다 적은 것은 사례가 중도에 탈락되고 결혼상태가 측정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사시점 이전에 결혼한 경우(사례1)의 평균연령은 37.7세(1998년 기준)이고, 이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5.5세로 다른 유형들과 비교하면 평균연령은 높은 반면 평균 초혼연령은 더 낮다. 조사기간 중 초혼한 사례2는 총 사례수가 231명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작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6.0세(1998년 기준)이고 평균초혼연령은 27.5세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기간이 끝나도록 초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1,199명의 조사대상자는 관찰이 중지된(censored) 상태에 해당한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4.7세로 가장 낮았다.

〈표 3〉 초혼시기의 관찰

	표본유형			
	사례1 (조사이전 초혼)	사례2 (조사기간 중 초혼)	사례3 (조사기간까지 미혼)	전체
N	5,978명	231명	1,199명	7,408명
평균연령 (1998년 기준)	37.7세	26.0세	24.7세	36.8세
평균 초혼연령	25.5세	27.5세	-	25.6세
사건 관찰여부	관찰종료	관찰종료	관찰중지	

(2) 독립변수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성, 코호트, 교육수준, 취업여부, 종사상지위 및 직종을 측정하였다. <표 4>는 변수를 조작한 방법과 변수들의 평균속성을 요약한 것으로, 각 변수들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측정하였는데, 양성(남성)이 동등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결혼코호트는 1990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 1990년-1997년 결혼한 경우, 그리고 1998년 이후에 결혼한 경우(2002년 조사 당시 미혼자 포함)의 세 가지로 측정하였는데, 각각 54.0%, 26.7%, 그리고 19.3%에 달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수준 이하(불취학과 초등학교 수준 포함),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고등학교 수준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고, 대학교 수준 29.2%, 중학교 수준 이하 22.2% 순이다. 대학원수준 이상은 가장 적은 3.0%로 나타났다.

고용특성은 세 가지 변수로 세분하였다. 우선 결혼직전의 취업상태는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조사기간 중 결혼했거나 미혼인 경우는 취업상태 여부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1998년 조사이전 결혼한 사람의 결혼직전 취업상태를 추적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1998년 조사당시 미혼인 사례에 국한해 볼 때 결혼직전 취업자는 전체의 31.7%이고 비취업자는 68.3%로 나타난다.

〈표 4〉 변수의 조작 및 평균속성 (1998-2002)

변수		조작적 정의	비율(%)	
성	남		50.0	N=8,639 (1998년)
	여		50.0	
결혼코호트		1990년 이전 결혼한 코호트	54.0	N=7,408
		1990-1997년 결혼한 코호트	26.7	
		1998년 이후 결혼한 코호트	19.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기준)	22.2	N=7,588
		고등학교	45.5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29.2	
		대학원이상	3.0	
결혼직전	취업여부	비취업(기준)	31.7	N=1,521
		취업	68.3	
고용상태	종사상 지위	상용직(기준)	78.7	N=2,741
		임시직·일용직	11.9	
		자영업	5.8	
		가족종사자	3.6	
고용상태	직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전문가(기준)	7.1	N=2,254
		기술공·준전문가	11.4	
		사무직	24.4	
		서비스직·판매직	18.0	
		농어업	4.5	
		기능원·조립원	28.7	
	단순노무직	5.9		

종사상지위와 직종 역시 결혼직전의 상태를 측정했다. 최초 조사시점 이후에 결혼했거나 미혼인 경우는 고용상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였고 1998년 조사이전에 결혼한 사례는 직업력 자료를 통해 결혼시기 직전의 직업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원 직업력 자료가 많은 결측치(missing)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 기간 전에 결혼한 사례의 직업과 고용상태변수는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였다. 결혼 직전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로 분류된다. 결혼 직전 취업상태에 있는 다수가 상용직(78.7%)에 종사하였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11.9%, 자영업이 5.8%, 가족종사자가 3.6%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직전 직종은 입법공무원·고위관리직·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임업, 기능원·조립원·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하였다. 분포를 보면 기능원·조립직이 전체의 28.7%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24.4%), 서비스직·판매직(18.0%), 기술공·준전문가(11.4%), 입법공무원(7.1%), 단순노무직(5.9%) 및 농어임업(4.5%) 순으로 나타났다.

3) 불완전한 자료의 보완

고용부분 변수의 불완전성, 다시 말해 표본 선택성의 편의(bias)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ckman의 이단계 모형(1976, 1979)을 사용한다. 이 모형은 그 방법이 용이하고 여러 형태의 선택성 관찰 상황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선택(Selection) 모형과 결과(Outcome) 모형

$$y_{1i}^* = X_{1i}b_{1i} + u_{1i} \quad \text{if } y_{2i} > 0 \quad \text{<식 2>}$$

$$y_{2i}^* = X_{2i}b_{2i} + u_{2i} \quad \text{<식 3>}$$

Heckman의 이단계 모형은 선택성 오류(selection bias)를 결과모형(y_{1i}^*)에서의 규정오류(specification error)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여 결과 모형이 선택성(selection) 지표를 적절하게 규정하지 못하면, 오차(u)의 평균은 0이 아니고 회귀계수도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성 오류의 개선책은 선택성 관찰에 대한 최적의 지표를 구성하여 그것을 <식 4>와 같은 결과모형식 안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람다(λ_i)는 역 Mill's ratio를 가리키는데 이는

관측률의 확률누적분포(Φ)에 대한 밀도함수(ϕ)의 비를 의미한다(박경숙, 1998).

관측의 선택성 지표를 포함한 결과모형

$$y_{li} = X_{li}b_{li} + \rho\lambda_i + e_{li} \quad \text{where} \quad E(e_{li}) = 0 \quad <\text{식 4}>$$

$$\lambda_i = \frac{\phi(X_{2i}b_{2i})}{\Phi(X_{2i}b_{2i})}$$

Heckman의 모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선택성 모형과 결과모형이 동일한 공변인을 포함하거나 선택성 모형의 공변인이 결과모형에 포함된 공변인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될 경우 심각한 규정성 문제(identification problem)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선택성 여부를 규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 당시 가구소득과 1998년 당시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사상지위와 직종변수의 결측 여부(결측=0, 비결측=1)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택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구한 선택편의 변수, λ 값을 결혼시기에 대한 Cox 회귀분석 모형 안에 포함하여 관측의 편의를 통제하였다.

4. 분석결과

1) 남녀 교육수준별 결혼 직전 취업상태의 코호트 차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료의 제한 때문에 남녀별 결혼 전 취업유무는 1998년 조사 시점에서 미혼인 사례에 제한하여 살펴본다. <표 5>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초혼이 이루어진 사례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의 관계를 나타낸다. 결혼 전 취업률은 대학교 교육 수준을 지닌 남성의 취업율이(77.5%)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지닌 남성에(92.3%)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대학교 교육수준을 지닌 남성의 취업률이 더 낮은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청년층 인구 중 대학교 교육수준의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크다고 사료된다. 한편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지녔을 때 결혼전 취업률은 54.2%이고 대학교 교육수준을 지녔을 때 결혼 전 취업률은 60.0%를 보여주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1998년 이후 결혼한 남녀의 교육수준별 결혼 직전 취업유무* (단위: 명, %)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
남 성	비취업	-	7.7	22.5	-	14.3
	취업	100.0	92.3	77.5	100.0	85.7
	계	100.0 (4)	100.0 (26)	100.0 (40)	100.0 (7)	100.0 (77)
여 성	비취업	-	45.8	40.0	-	41.1
	취업	-	54.2	60.0	100.0	58.9
	계	-	100.0 (24)	100.0 (30)	100.0 (2)	100.0 (56)

* 주: 최종 조사 시점(2002년) 현재 미혼인 자는 제외함.

〈표 6〉은 남녀 교육수준별 결혼직전 종사상 지위의 코호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남성의 경우 1990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높고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1990-1997년 결혼코호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에 종사할 비율이 높고,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할 비율은 낮다. 그러나 이 코호트에서 자영업 비율은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코호트에서 남성의 낮은 교육수준은 상용직 진출을 다소 제한하고 있다. 이전 코호트와 비교하면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인 취업 남성의 상용직 종사 비율이 낮은 편이다(50.0%). 또한 타 교육수준 남성들에 비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임시직·일용직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서(50.0%), 이 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안정적 고용 지위 점유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경제위기 이후 코호트에서는 자영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다른 코호트들과 구분되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는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 남성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1990-1997년 결혼코호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종사상 지위 분포에는 다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코호트 취업 여성들의 임시직·일용직의 비율은 고등학교 수준보다 대학교 수준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후 결혼코호트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크지만,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은 이전 코호트에 비해 더 적어짐을 알 수 있다.

<표 6> 남녀 교육수준별 결혼 직전 종사상지위의 코호트 차이 (단위: 명, %)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					1990-1997년 결혼코호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				
		중학 교 이하	고등 학교	대학 교	대학 원	계	중학 교 이하	고등 학교	대학 교	대학 원	계	중학 교 이하	고등 학교	대학 교	대학 원	계
남 성	상용직	57.3	76.1	78.3	100.0	69.9	68.3	75.1	81.1	81.8	76.2	50.0	59.4	84.8	71.4	70.5
	임시직 일용직	15.8	13.3	14.5	-	14.2	19.5	17.3	12.6	9.1	16.0	50.0	15.6	3.0	14.3	12.8
	자영업	9.9	4.4	4.3	-	6.4	2.4	4.1	6.3	9.1	4.7	-	21.9	9.1	14.3	14.1
	가족 종사	17.0	6.2	2.9	-	9.6	9.8	3.6	-	-	3.2	-	3.1	3.0	-	2.6
	계	100.0 (171)	100.0 (226)	100.0 (69)	100.0 (5)	100.0 (471)	100.0 (41)	100.0 (197)	100.0 (95)	100.0 (11)	100.0 (344)	100.0 (6)	100.0 (32)	100.0 (33)	100.0 (7)	100.0 (78)
여 성	상용직	75.1	90.9	92.7	100.0	85.1	80.0	91.3	84.6	100.0	88.9	-	92.9	90.0	100.0	92.0
	임시직 일용직	10.1	7.4	7.3	-	8.4	20.0	7.6	13.5	-	9.9	-	3.6	10.0	-	6.0
	자영업	3.6	0.9	-	-	1.8	-	0.7	1.9	-	0.9	-	-	-	-	-
	가족 종사	11.2	0.9	-	-	4.8	-	0.3	-	-	0.2	-	3.6	-	-	2.0
	계	100.0 (169)	100.0 (230)	100.0 (41)	100.0 (2)	100.0 (442)	100.0 (30)	100.0 (288)	100.0 (104)	100.0 (2)	100.0 (424)	-	100.0 (28)	100.0 (20)	100.0 (2)	100.0 (50)

* 주: 최종 조사 시점(2002년) 현재 미혼인 자는 제외함.

<표 7>은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 직전 종사한 직종의 코호트 차이를 보여준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근 고용구조의 변화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1998년 이후 코호트에서는 그 이전 코호트에 비해 생산직(기능원·조립원)에 종사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고용구조의 재조정으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직장을 떠난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교육수준별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세 코호트 모두에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위직·전문직이나 기술공준전문직에 종사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우도 세 코호트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위직·전문직이나 기술직준전문직에 종사할 비율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원 조립원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비율이 크다.

〈표 7〉 남녀 교육수준별 결혼 직전 직종의 코호트 차이 (단위: 명, %)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					1990-1997년 결혼코호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					
	중학교 이하	고등 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	중학교 이하	고등 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	중학교 이하	고등 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	
남 성	고위 전문직	-	0.6	14.8	60.0	3.1	-	-	12.7	27.3	4.4	-	-	17.1	-	8.0
	기술공중 전문	1.3	3.5	22.2	-	5.2	-	2.6	19.7	45.5	8.5	-	6.5	31.4	80.0	22.7
	사무직	2.0	14.7	31.5	40.0	12.3	-	6.5	21.1	9.1	9.6	-	9.7	31.4	-	18.7
	서비스 판매	10.5	14.7	11.1	-	12.3	14.3	20.8	18.3	18.2	19.2	-	22.6	8.6	-	13.3
	농어임	27.6	6.5	1.9	-	14.2	11.4	3.2	1.4	-	3.7	-	12.9	-	-	5.3
	기능원 조립원	50.7	52.4	11.1	-	45.1	65.7	57.1	15.5	-	45.0	75.0	32.3	11.4	20.0	24.0
	단순 노무직	7.9	7.6	7.4	-	7.6	8.6	9.7	11.3	-	9.6	25.0	16.1	-	-	8.0
	계	100.0 (52)	100.0 (170)	100.0 (54)	100.0 (5)	100.0 (381)	100.0 (35)	100.0 (154)	100.0 (71)	100.0 (11)	100.0 (271)	100.0 (4)	100.0 (31)	100.0 (35)	100.0 (5)	100.0 (75)
여 성	고위직 전문직	-	-	37.5	100.0	4.5	-	1.2	19.0	-	5.9	-	-	13.3	100.0	8.3
	기술공중 전문	-	6.0	17.5	-	5.1	3.8	4.9	33.0	-	12.4	-	-	66.7	-	27.8
	사무직	9.9	65.4	32.5	-	41.0	3.8	54.1	39.0	100.0	46.8	-	85.0	20.0	-	55.6
	서비스 판매	14.5	16.5	7.5	-	14.7	30.8	22.1	8.0	-	18.8	-	10.0	-	-	5.6
	농어임	13.0	-	-	-	4.8	-	-	-	-	-	-	-	-	-	-
	기능원 조립원	56.5	11.5	-	-	26.8	53.8	16.0	-	-	14.2	-	5.1	-	-	2.8
	단순 노무직	6.1	0.5	5.0	-	3.1	7.7	1.6	1.0	-	1.9	-	-	-	-	-
	계	100.0 (131)	100.0 (182)	100.0 (40)	100.0 (1)	100.0 (354)	100.0 (26)	100.0 (244)	100.0 (100)	100.0 (2)	100.0 (372)	-	100.0 (20)	100.0 (15)	100.0 (1)	100.0 (35)

주: 최종 조사 시점(2002년) 현재 미혼인 자는 제외함.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육수준별 직종분화가 코호트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1990년 이전 결혼 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남성 취업자의 과반수는 주로 기능직에,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취업자의 상당수는 사무직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기능직 고용이 축소되면서, 1998년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남성의 직종은 서비스·판매직, 사무직으로 이동하였고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남성의 직종은 사무직, 기술공·전문직, 고위직·전문직, 서비스·판매직으로 분포되는 경향이 보인다. 대학교 이상은 사무직에, 고등학교 이하는 기능직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졌던 1990년 이전 결혼 코호트와 비교할 때 최근 결혼 코호트에서는 두 부문 종사자의 교육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학력별 직종분포의 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1997년 이전 코호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과 대학교 이상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 모두에서 사무직의 비중이 크고,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여성은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생산직과 사무직의 여성 노동규모가 줄어들고 사무직 노동이 하향화 되면서 1998년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 수준을 지닌 여성은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및 생산직으로 그리고 대학교 이상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은 고위직·전문직과 기술공·전문직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 남성의 결혼시기의 결정요인

남성의 결혼시기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에 앞서, 표본선택의 편의를 보완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와 직종의 결측 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표 1> 참조). 관측률의 공변인은 1998년 연령과 1998년 가구소득으로 정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위기 이전 코호트에서는 1998년 당시의 연령이 낮을수록, 1998년 가구소득(자연로그값)이 낮을수록 종사상지위나 직종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위기 이전 최근 코호트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종사상지위나 직종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경제위기 이후 코호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관측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관측률 분석에서 구한 공변인들의 회귀계수에 기초하여 Mill's Ratio(λ)를 구하여, 주 결과모형인 결혼시기에 대한 Cox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8>은 교육, 취업유무, 종사상지위 및 직종 변수 각각을 편의지수와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을 때 개별 요인들의 결혼시기의 속도에 대한 효과를 요약하고 있다.

〈표 8〉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전이속도에 대한 연속(cox) 사건사분석 결과1(남성)

	남성(무차모형)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		1990-1997년 결혼코호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	
	B	S.E	B	S.E	B	S.E
Lambda 교육(기준: 중학교이하)	-2.93	0.61***	1.24	0.50*	7.00	1.84***
고	-0.18	0.06**	0.56	0.14***	0.79	0.45~
대	-0.35	0.07***	0.38	0.14**	1.02	0.46*
대학원 이상	-0.33	0.14*	0.26	0.19	1.38	0.56*
	사건 = 1,705 censored = 0 계 = 1,705		사건 = 959 censored = 0 계 = 959		사건 = 103 censored = 763 계 = 866	
Lambda 고용(기준: 비취업)					11.24	2.32***
취업	-	-	-	-	0.70	0.33*
					사건 = 75 censored = 763 계 = 838	
Lambda 종사상지위(기준: 상용직)	-3.15	1.14**	1.92	0.60**	10.05	2.24***
임시직 일용직	0.01	0.14	-0.11	0.15	-0.02	0.35
자영업	0.19	0.20	-0.14	0.26	0.15	0.34
가족종사	0.26	0.16	-0.29	0.32	-0.56	1.01
	사건 = 461 censored = 0 계 = 461		사건 = 338 censored = 0 계 = 338		사건 = 75 censored = 492 계 = 567	
Lambda 직종(기준: 전문·고위직)	-2.54	1.26*	2.21	0.70***	10.28	2.24***
기술공 준전문가	0.29	0.37	0.68	0.36~	0.41	0.48
사무직	0.03	0.33	0.30	0.36	0.57	0.49
서비스판매직	0.32	0.33	0.64	0.33~	-0.23	0.52
농어임업	0.64	0.32*	0.20	0.45	0.15	0.82
기능원조립원	0.41	0.30	0.67	0.31*	0.07	0.47
단순노무직	0.22	0.35	0.51	0.36	0.01	0.58
	사건 = 374 censored = 0 계 = 374		사건 = 268 censored = 0 계 = 268		사건 = 72 censored = 359 계 = 431	

주: *** p<.001, ** p<.01, * p<.05, ~ p<.1

우선 표에서 보듯이 모든 모형의 Λ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측사례의 선택성이 확인되고 있다. 교육수준의 효과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에 결혼한 남성의 경우, 중학교 수준과 비교할 때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수준 등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초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교육수준이 초혼시기를 늦추는 이러한 상황은 이후 결혼코호트에서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즉, 1990~1997년에 결혼한 남성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인 남성의 초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더 빠르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1998년 이후에 결혼한 남성들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초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은 남성들에게 중요한 결혼의 자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는 배우자 선택과정에서도 학력계층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남성들에게 결혼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취업이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의 남성들만이 분석되었는데, 결혼직전 취업상태일수록 결혼시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빨라짐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코호트(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 남성에게 취업은 앞에서 제시한 교육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직종별 효과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 농·어·임·어업직의 초혼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랐고, 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는 기능원·조립원의 초혼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에 제시되는 분석표는 교육과 취업상태를 함께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표 9>).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모형에 Λ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를 대상으로 교육과 고용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취업과 교육이 결혼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전이속도에 대한 연속(cox) 사건사분석 결과2(남성)

	남성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		1990-1997년 결혼코호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	
	B	S.E	B	S.E	B	S.E
Lambda					9.82	2.40***
교육(기준: 중학교이하)						
고					0.71	0.55~
대					1.09	0.55*
대학원이상	-	-	-	-	1.65	0.66*
고용(기준: 비취업)						
취업					0.77	0.33*
					사건 = 75 censored = 763 계 = 838	
Lambda	-3.20	1.15**	1.45	0.65*	9.29	2.30***
교육(기준: 중학교이하)						
고	-0.23	0.11*	0.72	0.19***	0.50	0.47
대	-0.47	0.15**	0.44	0.21*	0.60	0.49
대학원이상	-0.41	0.46	0.09	0.36	1.46	0.61*
종사상지위(기준: 상용직)						
임시직 · 일용직	-0.02	0.14	-0.19	0.16	0.15	0.36
자영업	0.08	0.20	-0.16	0.26	0.23	0.34
가족종사자	0.12	0.17	-0.19	0.32	-0.46	1.01
	사건 = 461 censored = 0 계 = 461		사건 = 338 censored = 0 계 = 338		사건 = 75 censored = 492 계 = 567	
Lambda	-2.78	1.28*	1.55	0.71*	9.50	2.29***
교육(기준: 중학교이하)						
고	-0.17	0.12	0.78	0.21***	0.87	0.55
대	-0.40	0.20*	0.73	0.26**	0.95	0.56~
대학원이상	-0.25	0.56	0.45	0.42	1.09	0.70
직종(기준: 고위 · 전문직)						
기술공 준전문가	0.27	0.41	0.65	0.37~	0.37	0.48
사무직	-0.06	0.38	0.20	0.37	0.58	0.49
서비스직 판매직	0.13	0.39	0.58	0.36	-0.18	0.52
농림어업	0.34	0.40	0.39	0.48	0.20	0.82
기능원 조립원	0.19	0.38	0.70	0.36*	0.12	0.47
단순노무직	0.02	0.41	0.43	0.38	0.04	0.59
	사건 = 374 censored = 0 계 = 374		사건 = 268 censored = 0 계 = 268		사건 = 72 censored = 359 계 = 431	

주: *** p<.001, ** p<.01, * p<.05, ~ p<.1

또한 교육과 종사상 지위의 상대적 효과를 보면, 모든 코호트에서 종사상 지위의 효과는 없었지만 교육수준의 효과는 남아있다. 1990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늦어져, 학업지속기간의 연장에 맞추어 초혼시기도 따라서 늦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0~1997년에 결혼한 코호트와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초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빠르다. 즉 1990~1997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 남성의 초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났고,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도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 비해 대학원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의 초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남성의 교육수준과 직종이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990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직종의 효과는 사라졌지만, 중학교 이하 수준에 비해 대학교 수준의 초혼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1997년 사이에 초혼한 남성들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빨라지며, 직종별로는 고위전문직보다 기능원의 초혼시기가 빠르다. 그리고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 비해 대학수준의 초혼시기가 빨랐지만, 직종의 효과는 무차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았다.

3) 여성의 결혼시기의 결정요인

여성의 결혼시기를 결정하는 효과를 논하기 전에 표본선택의 편의 여부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1998년 가구소득(자연로그값)이 낮을수록 관측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부록표 2> 참조). 또한 1990-1997년 결혼코호트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종사상 지위나 직종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위기 이후 결혼코호트에서 연령효과는 없었지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관측가능성이 높았다. 이 모형에서 구한 Lambda 값을 결혼시기에 대한 Cox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0>에 제시하였듯이 모든 모형들에서 Lambda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결혼시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1990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결혼시기도 늦어졌으나, 1990~1997년에 결혼한 코호트에 와서는 반대의 상황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90~1997년에 결혼한 여성에서는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1990-1997년에 결혼한 여성들에게 교육은 초혼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

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장 최근 코호트인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에서는 교육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표 10>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전이속도에 대한 연속(cox) 사건사분석 결과(여성)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		1990-1997년 결혼코호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	
	B	S.E	B	S.E	B	S.E
Lambda 교육(기준:중학교이하)	-1.43	0.33***	-4.31	0.37***	-8.48	4.26*
고	-0.45	0.05***	0.56	0.13***	1.27	1.02
대	-0.70	0.07***	0.40	0.14**	0.59	1.02
대학원 이상	-0.77	0.30*	0.23	0.36	0.08	1.23
	사건 = 2,171 censored = 0 계 = 2,171		사건 = 962 censored = 0 계 = 962		사건 = 79 censored = 421 계 = 500	
Lambda 고용(기준: 비취업) 취업	-	-	-	-	-10.99	5.38*
	-		-		사건 = 54 censored = 421 계 = 475	
Lambda 종사상지위(기준: 상용직)	-2.49	0.78***	-3.88	0.58***	-3.87	0.48
임시직 일용직	0.04	0.17	-0.38	0.17*	-0.27	0.20
자영업	0.23	0.36	-0.49	0.50	-13.15	0.01
가족종사	0.48	0.24*	-0.77	1.01	-0.09	0.01
	사건 = 431 censored = 0 계 = 431		사건 = 413 censored = 0 계 = 413		사건 = 49 censored = 296 계 = 345	
Lambda 직종(기준: 고위·전문직)	-2.74	0.90**	-5.13	0.65***	-2.80	6.25
기술공 준전문가	0.18	0.35	-0.17	0.26	1.03	0.66
사무직	0.10	0.27	0.11	0.23	1.59	0.62*
서비스판매직	0.47	0.30	-0.13	0.25	-0.59	0.92
농어임업	1.03	0.36**	-	-	-12.85	1274.71
기능원조립원	0.51	0.28~	-0.11	0.26	-0.95	1.16
단순노무직	0.44	0.41	-0.61	0.45	-12.89	583.17
	사건 = 343 censored = 0 계 = 343		사건 = 367 censored = 0 계 = 367		사건 = 35 censored = 215 계 = 250	

주: *** p<.001, ** p<.01, * p<.05, ~ p<.1

한편,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유무와 결혼시기를 살펴보면 취업한 여성의 초혼시기는 비취업여성의 초혼시기보다 유의하게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의 지위가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990년 이전 결혼 코호트는 상용직에 비해 가족종사자의 결혼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1990~1997년 결혼코호트 여성은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결혼시기가 늦게 나타나며, 1998년 이후 코호트에서는 종사상지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취업여성의 직종별 효과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고위·전문직에 비해 농·어·임업과 기능원·조립원의 초혼시기가 더 빠르고, 1990~1997년에 결혼한 여성에서는 직종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에서는 고위·전문직에 비해 사무직 여성의 초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교육과 취업상태 요인의 다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의 여성들의 경우 교육수준의 효과는 사라지고 취업효과만 남는데, 취업한 여성의 초혼시기가 늦게 나타났다(<표 11>). 종사상지위와 교육수준의 상대적 효과를 보면, 1990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종사상지위의 효과는 사라졌고 교육수준의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0~1997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도 종사상의 지위의 효과는 사라졌지만,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 비해 고등학교 수준의 여성들의 결혼시기가 빠름을 알 수 있다.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 여성의 초혼시기를 보면, 교육수준과 종사상지위 모두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직종이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990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직종의 효과는 사라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시기가 늦어진다. 1990~1997년에 결혼한 여성에서 직종의 효과는 사라졌고, 중학교 수준에 비해 고등학교 수준인 여성의 초혼시기가 유의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의 여성에서 교육수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직종의 경우는 고위·전문직에 비해 사무직의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남녀의 결혼시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연구가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고학력자의 결혼기회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약화되었다고 가정하였는데(1-1), 분석결과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고학력자는 결혼에서 우위적인 위치가 두드러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와 마찬가지로, 1998년 이후 결혼한 남성에서도 저학력 남성의 초혼시기가 고학력 남성의 초혼

<표 11> 미혼에서 초혼으로의 전이속도에 대한 연속(cox)사건사 분석 결과2(여성)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		1990-1997년 결혼코호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	
	B	S.E	B	S.E	B	S.E
Lambda					-10.82	5.45*
교육(기준: 중학교이하)						
고					9.27	69.60
대					8.98	69.60
대학원이상	-	-	-	-	8.60	69.60
고용(기준: 비취업)						
취업					-0.53	0.28~
					사건 = 54 censored = 421 계 = 475	
Lambda	-2.77	0.78***	-3.95	0.59***	-6.08	5.97
교육(기준: 중학교이하)						
고	-0.47	0.11***	0.59	0.20**	9.05	75.21
대	-0.63	0.18**	0.35	0.22	7.97	75.21
대학원이상	-1.36	0.72~	0.34	0.74	8.34	75.22
종사상지위(기준: 상용직)						
임시직 · 일용직	-0.02	0.17	-0.26	0.18	-0.38	0.62
자영업	-0.06	0.37	-0.49	0.50	-8.25	25.90
가족종사자	0.24	0.24	-0.88	1.01	-0.55	1.02
	사건 = 431 censored = 0 계 = 431		사건 = 413 censored = 0 계 = 413		사건 = 49 censored = 296 계 = 345	
Lambda	-3.03	0.93***	-5.16	0.65***	-4.49	6.14
교육(기준: 중학교이하)						
고	-0.39	0.17*	0.42	0.22~	7.37	75.26
대	-0.53	0.27*	0.21	0.26	6.61	75.27
대학원이상	-1.16	1.07	0.14	0.75	6.35	75.27
직종(기준: 고위 · 전문직)						
기술공 준전문가	0.04	0.38	-0.20	0.26	1.09	0.66
사무직	-0.11	0.35	-0.01	0.25	1.37	0.63*
서비스직 판매직	0.14	0.37	-0.23	0.28	-0.68	0.92
농림어업	0.47	0.45	-	-	-7.28	101.95
기능원 조립원	0.02	0.38	-0.23	0.29	-0.98	1.16
단순노무직	-0.10	0.48	-0.50	0.47	-7.84	48.53
	사건 = 343 censored = 0 계 = 343		사건 = 367 censored = 0 계 = 367		사건 = 35 censored = 215 계 = 250	

주: *** p<.001, ** p<.01, * p<.05, ~ p<.1

시기보다 유의하게 늦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경제위기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 고학력 남성과 저학력 남성간의 결혼시기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1-2)은 지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위기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고학력

남성의 결혼 시기는 저학력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 비취업 남성이 취업남성의 결혼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늦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1-3), 노동지위에 따른 결혼의 계층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 최근 코호트(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저학력 여성보다 더 빠를 것이라는 가설(2-1)은 강하게 지지된다. 그런데 경제 위기 이후 코호트에서는 그 교육수준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늦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 고학력/취업/전문직종 여성은 결혼 시기를 늦어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된다(2-3). 취업한 여성의 혼인시기가 유의하게 느리며, 사무직에 비해 전문직종의 초혼시기가 유의하게 늦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 전 취업과 결혼시기의 관계는 약할 것이라는 가설(2-2)은 분명하게 검증하지 못하였다. 다만, 경제 위기 전 코호트에서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빨랐는데, 경제위기 이후 코호트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지고, 대신 취업한 여성의 결혼시기가 유의하게 늦어진 결과에 비추어, 여성들의 교육, 취업, 결혼 사이의 이행패턴이 경제 위기 전후 크게 변화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5. 맺음말

결혼의 가치는 결혼이 보장하는 효용에 구속되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계층 조건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가족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리된 상황에서 남녀가 부여하는 결혼의 가치와 그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어느 한 쪽의 긴장은 다른 쪽의 긴장과 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결혼이 계층화되고, 성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며 최근 경제위기라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결혼 기회와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의 만혼화 현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결혼가치의 쇠퇴나 경제불안의 효과의 영향에 관한 논의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남녀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과 취업상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는 1990년 이전 결혼 코호트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늦어

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에게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교육에 따른 초혼 지연 효과가 상쇄되며, 또한 계층혼이 강화됨을 반영한다. 남녀 분리적 성역할 규범과 계층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성에게 높은 교육수준은 중요한 결혼의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젊은 층의 취업조건이 악화되었다고 이해되는 시점에서도 그 세가 약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측정의 제약으로 경제 위기 이후 코호트에 제한하여 분석하였지만 취업여부에 따라 결혼시기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교육수준과 취업 상황에 따라 남성의 결혼기회가 크게 계층화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성의 초혼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보다 복합적인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1990년 이전 결혼 코호트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1990년~1997년에 결혼한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도 교육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육이 주요한 결혼자원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남녀가 다른데, 남성에게 고학력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면 여성에게 고학력은 이러한 유능한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한편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에서 교육의 효과가 약화되는데 이는 결혼을 통해 대리적 지위를 확보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유보한 결과로 판단된다. 취업과 초혼시기의 관계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발견된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초혼시기가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직 여성의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는 결혼이 보장하는 지위에 대한 기대에 따르고, 이러한 기대가 경제위기 전후로 변화했음을 가리킨다. 1990년대 교육 동질혼의 강화 경향은 고학력 여성이 시장력이 있는 남편을 통한 대리적 지위획득이 가능하였던 상황과 긴밀히 연관된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의 약화에 따라 여성들의 지위획득에 있어 결혼의 가치가 약화됨을 뜻한다. 가족을 통한 지위획득기회가 제약되면서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가 크게 증가되었고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 노동자의 직종분포가 교육수준에 따라 크게 분화되는 것은 여성에게도 노동시장에서 지위획득의 경쟁이 강

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1990년 후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만혼화 현상은 지위획득의 메카니즘으로서 결혼이 고도로 계층화되는 동시에 성역할 분리규범이 강한 구조에 경제조정에 따른 일인생계부양 가정 만들기에 제약이 가해져 우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미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미혼남성들의 시장력이 약화되면서,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대리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약되었고, 그 결과 여성들 스스로 경제활동 참여 동기가 커지고 결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과 같이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경향이 있다. 한편 여전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가 크게 제약되어 있고 대부분의 여성노동이 주변적 일자리에 머무는 상황에서 여성의 가족 중심적 정체성이나 결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가 구조적으로 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직업력과 결혼력의 자료는 불완전하여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는데 제한이 컸다. 결혼의 행위 조건과 구조의 변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생애 자료 개발과 심층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최근에 종단적 자료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지만, 가족 관계와 관련된 종단적 자료나 연구는 아직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생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노동, 가족 관계를 아우르는 조사 자료의 개발과 이에 기초한 심층적인 분석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부록표 1〉 결혼 직전 취업상태 관찰률의 로짓분석, 남성

	남성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		1990-1997년 결혼코호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	
	B	S.E	B	S.E	B	S.E
상수	0.63	0.57	0.44	0.66	-1.97	0.60***
98년 연령	-0.03	0.01*	0.02	0.02	0.12	0.02***
98년 가구소득 (자연로그값)	-0.26	0.09**	-0.74	0.16***	-0.07	0.15
N	1,707		961		880	
-2Log Likelihood	1980.84		1222.52		999.27	

주: 종속변수는 결혼직전 취업상태의 관측여부(1=관측, 0=비관측)의 로짓값이다.

* p<.05. ** p<.01. *** p<.001.

〈부록표 2〉 결혼 직전 취업상태 관찰률의 로짓분석, 여성

	여성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		1990-1997년 결혼코호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	
	B	S.E	B	S.E	B	S.E
상수	2.53	0.49	2.15	0.61***	0.71	0.70
98년 연령	-0.09	0.01*	-0.05	0.02**	-0.01	0.02
98년 가구소득 (자연로그값)	-0.15	0.09**	-0.43	0.14**	0.34	0.17*
N	2,182		962		525	
-2Log Likelihood	2104.25		1297.42		590.05	

주: 종속변수는 결혼직전 취업상태의 관측여부(1=관측, 0=비관측)의 로짓값이다.

* p<.05. ** p<.01. *** p<.001.

참고문헌

- 민경희(2002), “노동력”,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pp. 393-428.
- 박경숙(1993),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결혼유형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8). “불완전한 자료에 대한 보완기법: EM 알고리즘과 2단계(Two Stage)모델”, 《한국인구학》 21(1): 162-183.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 _____ (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 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 이삼식(1993), “한국인 결혼행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16(2): 84-110.
- 이명진(2002), “교육수준별 결혼표의 비대칭성으로 살펴본 남녀 불평등지수”, 《한국인구학》 25(1): 33-50.
- 이환석(1992),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교육 동질혼의 변화추세에 관한 연구》, 동아대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장상수(1999), “한국사회의 결혼이동-교육수준별 동질혼 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 33(여름호): 417-448.
- 최섯별(2002),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음악전공여성사례”, 《한국사회학》 36(1): 113-144.
-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전략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24(겨울): 103-120.
- 아이뉴스, 2005년 3월 15일, “구직자 40% 취업 못해 연인과 헤어져”(잠링크)
- 동아일보, 2005년 4월 21일, [위크엔드 포커스] 결혼? 인생은 일로 승부하는거야!
- 조선일보, 2005년 6월 21일, [600만 싱글의 힘] “우리는 대한민국 싱글 프런티어”
- 동아일보, 2005년 7월 12일, 「2005 한국의 결혼풍속도」 上 “이런 배우자를

원해요”

중앙일보, 2005년 7월 22일, 만남서 결혼까지 가장 따지는 건 학력·돈·용모 순

- Becker, Gary (1974), “A Theory of Marria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s11-s26.
- Boudon, Raymond (1973),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y*, New York: John Wiley.
- Grusky, David (1983), “Industrialization and the Status Attainment Process: The Thesis of Industrialism Reconside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494-506.
-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s”, *Econometrica* 47: 153-161.
- _____ (1976),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5: 475-492.
- Park, Mee-Hae (1990),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Korea and the USA : 1950-79”,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